

2016 년 5 월 29 일(주일) 야고보서(20)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리니”(약 5:7-11)

<도입>

이 세상 모든 성공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내입니다.

마이클 조던은 '나는 실패했고, 실패했고, 또 실패했다, 그것이 나의 성공의 원인이다'

영국의 윈스턴 처칠 수상, '포기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절대로 포기하지 맙시다'

국민들이 그 말로 인하여 힘을 합했고 히틀러를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토마스 에디슨, "인생에서 실패한 사람 중 다수는 성공을 목전에 두고도 모른 채 포기한 이들이다"

성경에서도 인내는 참으로 중요한 덕목입니다.

고전 13:4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고전 13:4)

눅 21:19 에서 예수님은 "너희의 인내로 영혼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 10:36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욥)

[1] 4 장 흐름의 간략한 review

4:8 말씀. 성도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을 걸으면 하나님은 그에게 더욱 가까이 하십니다. 보다 더 큰 유업의 축복을 부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지난 3 시간동안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길을 보았습니다:

- (1) 이웃을 비방/판단하지 말라. 하나님의 입법과 사법의 자리를 꿰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2) 허탄한 자랑에 빠지지 말라, 자랑은 악한 것인데 왜 악합니까? 남과 비교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몰두와 사모함을 빼앗깁니다.
- (3) 재물과 일반적 욕심에 관한 경고입니다. '조금 더'의 마음의 동향이 남아 있을 때, 상대와의 관계에서 축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조금만 더'라고 말하는 상대에게 지치게 되며, 하나님 나라의 기본인 관계의 축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적극적인 이슈들로 도전합니다. 첫째가 인내, 둘째는 기도에 대한 것입니다.

[2] 성도의 인내는 어떤 성격을 갖는가?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도, 일반적으로 인내가 포함하는 정진하고 기다리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배우는 인내의 특징은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정진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서 성취되는 때(영적 유업)까지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인내하며 이른 세상적 성공도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으로 의미가 있다)

7, 8 절.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참으라. (강림 = 나타나심)

두 가지 측면: (1) 주님의 다시 오심.

(2) 구체적인 삶의 정황에 적극 드러나심 - 현실에서 주님의 은혜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심.

(은혜: 현상과 세속의 차원을 넘어서 본질의 차원에 초청받고 들어가니 진선미의 지고한 가치가 내게 값없이 임했음을 감지하고 선물로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배려와 베푸심)

본문의 인내의 본: 농부가 수확을 위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인내, 선지자들, 그리고 욥의 인내. 공통점은 참고 기다림입니다. 이것과 더불어 무엇이 이루어지기까지 인내하는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농부는 열매 수확까지 이른 비, 늦은 비가 충분히 내려야 함을 절실한 맘으로 기대합니다. 곡식마다 필요로 하는 비의 양은 다릅니다. 또한 물이 많이 필요한 곡식이 다른 곡식보다 더 좋고 나쁘고도 없습니다. 또 어떤 곡식은 일모작, 어떤 곡식은 이모작. 각자의 속성에 맞게 필요한 만큼 비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인내의 과정과 결과에 있어서 남과 비교가 없습니다. 내가 더 많이 고생하며 참았으니까 더 많은 열매가 열릴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걸으면서 필요한 자원과 축복을 공급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인생의 꽃을 피우기 위해 인고의 세월이 필요함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 [3] 주님을 새롭게 만남(을 기대하는 것이 중요)

선지자들의 인내를 배우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성공과 인정을 보장받지 못했고 오히려 멸시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것을 내다보면서 자기 삶에서 은혜의 본질을 추구하며 살려고 어떤 대가도 치루었습니다. 주님의 강림에 대한 살아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욥의 인내: 의인 욥(욥 1:1). 그런데 갑자기 큰 재앙이 닥쳐 외적 내적으로 비참해졌습니다. 자기 인생을 저주합니다. 위로하러 온 세 친구들도 자신을 대적합니다. '욥, 너 죄 진 것 있지? 그러니 이런 재앙이 닥친 거지! 욥은 대노했고 긴 논쟁이 이어집니다. 욥의 2 차 시련은 이들의 비난과 정죄였습니다.

여기서 친구들에 대한 원망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이어집니다. 친구들에게나 하나님께 자신은 잘못 없음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욥이 하나님께 항변할 수 있는 이유는 전에 만난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의 하나님이심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 하나님께 따질 필요도 없음)

욥은 부단히 이 씨름을 합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길~게 듣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있는 그 자리가 고통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발견하는 자리요,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만남은 자신을 더 깊고 경이로운 복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깨닫습니다. 욥이 생각하는 것을 초월하여 당신의 축복의 세계를 열어 주심으로 인해 새로운 출발이 시작됩니다. 인내의 결과입니다.

이것이 야고보가 인내하는 자를 복되게 한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인내란 끝없는 하나님을 추구함, 이것이 항변의 형태이든, 눈물의 간구이든, 순종의 여정이든, 그 끝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하나님 한번 제대로 만나고 죽어야겠다는 필살의 간구는 바로 성도의 인내로 나타납니다.

#### <맺음>

주님은 이렇게 인내하는 자에게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로 나타나십니다. "가장"이라는 말을 주목해야 합니다(11 절). 모든 자비와 긍휼의 차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자비와 긍휼의 차원"이 또한 있습니다. 만일 성도님들의 삶에 내적 외적 고난과 번뇌로 인해 하나님을 찾는 것을 멈추신 분들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과 독대해야겠다는 간절한 심령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인내의 축복의 길을 가게 해줄 것입니다.

#### <나눔의 질문>

1. 당신이 생각한 인내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참 인내는 무엇을 목적으로 합니까?
2. 농부의 인내, 선지자들의 인내, 그리고 욥의 인내를 살피면서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란 말과 연관하여 당신에게 깨달어진 점은 무엇입니까?
3. 나는 지금 어떤 면에서 인내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현재 가고 있는 인내의 길이 있다면 나누어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남을 목적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서로 격려하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